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 근로자 실질임금 석 달째 줄었다

고용노동부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근로자 1인 평균 명목임금 409만원
실질임금 341만원… 전년비 0.1%↓

근로자 실질임금이 석 달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내리 감소했다. 실질임금의 3개월 이상 후퇴는 2023년 4~8월(5개월 연속) 기간 이래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은 명목임금 40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 대비로 3.1%(12만3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평균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줄었다. 실질임금은 올해 4월 -1.0%, 5월 -1.4%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3개월 이상 감소는 최근 3년 사이 첫 사례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올해 상반기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2022년 고물가 시기 이후 임금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평이한 임금 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은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평균 기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2.1% 늘어

난 데 반해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 줄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7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6000명(1.1%)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728만 명으로 7만8000명(0.5%) 증가했다. 임

시일용근로자는 207만1000명으로 14만 7000명(7.6%), 기타종사자는 1000명(0.1%) 늘었다. 전체 종사자 증가분 22만 6000명 중 임시일용근로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다.

정 과장은 “고용이 회복될 때 임시일용이 먼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이후 상용직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평균적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1만9000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만 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만 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1만4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증가폭은 4월 3000명, 5월 7000명, 6월 1만2000명, 7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도 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건설업 종사

자가 7만2000명 감소하는 등 23개월간 감소세가 이어졌던 데 비해 최근 증가폭은 3000~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도 2만8000명 줄면서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노동부는 대형마트 폐업·폐점 등이 최근 도소매업 종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입직·이직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입직자는 114만3000명으로 17만 7000명(18.3%), 이직자는 112만7000명으로 17만8000명(18.8%) 증가했다. 이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6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1000명(24.3%) 증가했다.

정 과장은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보통 임시일용직이 90% 정도를 차지한다”며 “계약기간 종료 측면이 강하고 구조조정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이직 증가에는 건설업 등 임시일용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출격… 플래그십-중저가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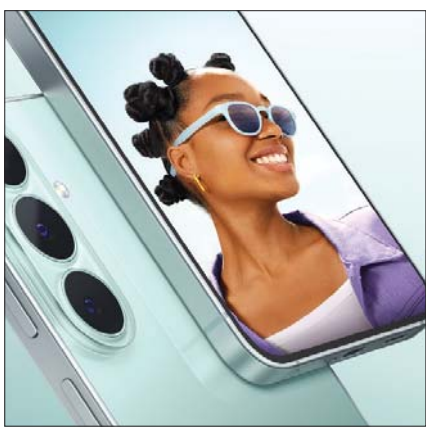
256GB 모델 기준 104만5000원
준플래그십 제품 통해 수요층 확대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준플래그십 ‘갤럭시 S26 FE’를 앞세워 수요층 확대에 나선다. 중저가 A시리즈와 플래그십 S시리즈 사이를 잇는 FE를 통해 변화하는 스마트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삼성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S26 FE’를 공개했다.

FE는 갤럭시 S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춘 준플래그십 제품군이다. 플래그십 제품 구매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나 기존 중저가 제품보다 높은 성능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한다. 전작인 갤럭시 S25 FE는 국내에서 256GB 모델 기준 94만6000원에 출시됐다.

신제품에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갤럭시 S26 FE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과 6.7형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며 최대 7세대에 걸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104만5000원이다.

S26 FE 출시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대별 수요 변화와 맞물린다. AI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모바일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에 민감한 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판매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부품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 흡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00달러 미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99달러 이하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 3월 1200만대 아래로 떨어져 전년 동월보다 약 40% 감소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초 18~19%에서 올해 3월 12%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제품은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150달러 미만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250~499달러 제품도 11% 줄었다. 같은 기간 500~699달러 제

품은 74%, 700달러 이상 제품은 18% 증가했다.

삼성전자도 이 같은 흐름에서 선방했다. 2분기 동남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삼성전자 출하량은 6% 증가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하량이 늘었다. 시장 점유율은 24%로 사오미(18%), 오포(17%), 트랜선(15%), 애플(9%) 등을 앞섰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보급형 제품에서도 가격 인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미국에서 199.99달러에 출시한 갤럭시 A17 5G는 현재 249.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시리즈부터 FE와 S시리즈까지 가격대별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A시리즈가 중저가 시장을 담당한다면 FE는 A시리즈와 S시리즈 사이에서 플래그십 진입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저가폰 수요가 줄고 높은 가격대의 제

품 비중이 커질수록 FE의 판매 성과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 전략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국가통신규제기관(ANATEL) 인증을 받은 갤럭시 A08 4G는 전작과 같은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는 전작의 5000mAh보다 늘어난 6000mAh 수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A08 4G와 갤럭시 A18이 오는 10월 출시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전반의 원가 부담을 높이지만 판매가격과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은 이를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저가폰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가격과 성능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제품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농·어업계 등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에 나선다. 또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개최 계획,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CPTPP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계의 우려와 예상 영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 과정을 거쳐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하고,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금융·정책 경험을 결합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와는 다음 달 8~11일 열리는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규모 증설에도 공급부족 지속 전망

▶▶ 1면 ‘HBM 확보 나선…’서 계속

신규시설 양산까지 수년 이상 필요

미국에서는 HBM 후공정 거점을 구축한다. SK하이닉스는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엿에서 HBM 첨단 패키징(여러 반도체를 연결하는 후공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연다. 38억7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자해 생산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 하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증설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생산 시설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같은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신규 생산시설이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필요한 만큼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산 확대 노력에도 공급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HBM4와 DDR5(5세대 D램 규격)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지난 7일 용인·청주 투자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결정”이라며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